

❖ 미가 6 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 1’

❖ 들어가기

본장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지한 변론의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 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 둘째, 미가의 입을 통한 이스라엘의 첫번째 응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의 죄악을 실랄하게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두번째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한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듯 이스라엘의 죄악과 잘못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시며 변론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들의 죄악을 들추어내시며 변론하신 이유는 단순히 저들을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구원을 얻게하시려는 은혜의 변론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첫 번째 변론 :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1-5 절)

1) 하나님은 먼저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1-2 절)

▪ 1-2 절 주목!

“ 너희는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들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와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①. 우선 ‘듣는다’ 는 단어와 ‘변론하다’는 단어가 각각 3 번씩이나 강조되어 사용됨을 주목!

⇒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스스로 비추는 일이다 !

⇒ Why? 인간은 결코 스스로 진실한 회개와 변화의 능력도, 가능성도 없기 때문!!

⇒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줄 믿는다!!

②. 따라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

⇒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론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③. 특별히 본문에서 반복되는 ‘변론’이란 단어는 재판장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다투는 것을 의미!

⇒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전 저들과 잘잘못을 따져 보고자 하신 것!!

⇒ Why? 회개를 바라시는 사랑과 긍휼, 자비의 마음 때문!!

④.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변론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심!

- ⇒ 이것은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이 하나님께서 3 절부터 말씀하실 모든 변론(주장)의 증인됨을 말씀하신 것!
- ⇒ 곧 수많은 세월동안 항상 그자리에 있던 산들과 지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잘못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란 의미!!

2)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변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3 절)

■ 3 절 주목!

“... ,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 ①.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변호인이 혹은 검사가 피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먼저 고발해 보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
- ②. 그런데 이것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결코 부당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음을 강조하신 것이요, 따라서 저들 스스로가 이 재판이 시작되기전에 스스로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뉘우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
 - ⇒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 변론해 주시며,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심!!

3)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첫 번째 변론! (4-5 절)

A.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4 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 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은혜)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
 - ⇒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
 - ⇒ 곧 출애굽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하나도 없음!
 - ⇒ 그 증거로 저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보내셨고, 사용하신 것!!
 - ⇒ 곧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제일 먼저 지적하시며 변론하신 것!!
 - ⇒ 예수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말고 감사하자!!

B.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5 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싯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①.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게 하심!

- a. 출애굽시 모압 왕 발락과 브올의 아들 발람 사건 (민수기 22-25 장)
 - 당시 모압 왕 발락은 브올의 아들 발람을 꺾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
 -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심!!
 -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축복의 길로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 b.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 (여호수아 4 장 -5 장)
 -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시딤에 도착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숭배를 행하며 범죄하는 일이 발생! => 결국 가나안 앞에서 실패하고 징계받을 상황에 놓인 것!!
 -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고 길갈로 이끄셨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심!!
 - 결국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며, 애굽의 모든 수치를 잊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결코 실족치 않고 항상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

- ②.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를 이스라엘이 기억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공의롭게 행하시는 것임을 알 것이라 선포하심!!
- ⇒ 이것은 마치 검사가 형량을 선고하기 전, 형량이 공의롭게 결정되었음을 선언하는 것!
 - ⇒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론에 이제 이스라엘이 답할 차례가 됨!!

2. ‘미가’(이스라엘)의 변론 (6-9 절)

1)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변론을 들은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6 절 A)

- 6 절 A =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2) 이때 ‘미가’는 이 질문을 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론을 크게 3 가지 예로 들었습니다.

- 6 절 B-7 절 주목!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말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①. 일 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림!

⇒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

②.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림!
⇒ 이것은 많은 제물로 정성껏 드리는 것을 의미!

③. 내 맡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림!
⇒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자식을 드리겠다는 말인데, 참고로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 곧 이것은 그 만큼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

➤ 그런데 선지자 ‘미가’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징계와 심판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질문하고 있음!!

3) 이후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진짜 선한 삶,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3 가지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 8 절 주목! => 미가서의 핵심 요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①. 정의를 행하는 삶과 인자(사람)을 사랑하는 삶!
⇒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면의 두번째 돌판에 기록된 내용들 곧 5 계명부터 10 계명까지의 내용을 함축시킨 말씀이라 할 수 있음!!
⇒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 항상 정의로와야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

②.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 이것은 결국 십계명의 첫번째 4 계명 곧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신 것!!

➤ 결국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도 아니고, 많은 물질, 귀한 물질도 아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댁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바라신다는 것!!

➤ 곧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희생,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결여되면, 모든 헌신이 다 무의미함을 깨닫고,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자!!

4) 선지자 ‘미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으며 회개하는 지혜자들이 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9 절)

▪ 9 절 주목.

“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3.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번째 변론 (10-16 절)

- 1)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에게 가르쳐주신 선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지적하시며 변론하셨습니다.

A.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음을 지적! (10-12 절)

▪ 10-12 절 주목!

“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 곧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했고, 불의했고, 거짓되었음을 지적하신 것!
 ⇨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삶의 첫째 조건, 곧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
 ⇨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 생활, 경제생활에도 정직하고 공의로워야함을 항상 잊지 않는 성도가 되자!!

▪ 계속해서 13-15 절 주목!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란 사실을 잊지 말자!! (ex: 연예계의 빚투 상황..)

B.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한 삶을 지적!

▪ 16 절 주목!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 오므리와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상 숭배자들!!
 ⇨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로 바알 숭배자였고, 그 아들 아합은 더욱 더 열심으로 바알을 숭배하며,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함!! (열왕기상 16 장)
 ⇨ 뿐만 아니라 저들은 자신의 권좌를 악용해 폭정을 일삼고,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
-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같은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
 ⇨ 저들을 황폐케 하며,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수치를 당하도록 하실 것!
 ⇨ 곧 앗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 갈 것을 예언하신 것!

❖ 다시금 하나님은 왜 이같은 변론을 이스라엘과 하셨는가? => 사랑과 긍휼, 자비하심 때문!